

# 부활절 부별 찬양발표회

을 부활절 축하 행사가 부별발표회로 27일 오후예배 때 진행됐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 가신지 3일 째 되는 날,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기념하는 날. 우리교회 각 부서는 많은 시간과 벽찬 감동을 느끼며

연습에 연습을 통해 완성도를 높이는데 노력했다. 그런 가운데 부원들의 단합과 친교로 함께 즐기며 춤추며 노래하는 값진 시간이었다. 조금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은 같음을 느끼며 다음 부활절을 기약하며 마쳤다.



## 2016 부활절 세례식

지난 27일 부활주일을 맞아 세례예식을 거행했다. 박승규 성도, 배서은 학생, 배승호 학생이 부활절 세례를 받았다.



### 백운교회 소식

#### ▶ 해외선교사 선교 보고차 방문

말레이시아 선교사 박길순 선교사는 4월 6일 수요일 저녁 예배에, 필리핀 선교사 황기수 선교사는 4월 10일 주일 오후 예배에 본 교회를 방문, 선교 보고회를 갖는다.

#### 소 천

▲ 김연수집사(심상덕집사/김동순집사모친): 지난 3월 22일 소천.

#### 3월호 정답자 발표

3월호 추첨결과 ▶ 장순자 ▶ 김대현 ▶ 김두현 ▶ 홍영순 ▶ 최현미 ▶ 이평순으로 결정되어 소정의 선물을 증정하였습니다.

발행인: 신상균 목사  
총괄제작: 백운교회문화부장  
제작실무: 백운교회 간행팀  
전화: 043-652-9191  
발행일: 매월 첫 주일  
Email: vit2be@naver.com  
※ 이름 이외 개인정보는 공개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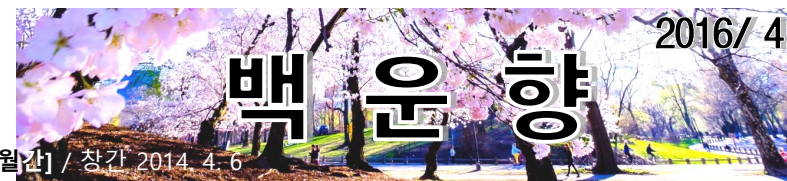
#### 4월호 숨은 그림찾기 응모권

그림 속의 숨은 그림을 찾아 동그라미로 표시하여 응모해 주시면 추첨을 통해 3분에게 선물을 드립니다. (4월24일 마감/추첨)  
〈숨은 그림: 숫자4, 물음표(?), 삼각자, 바케트빵, 변기압축기)〉

이름: \_\_\_\_\_ 전화번호: \_\_\_\_\_

백운교회 안내 / 백운감리교회는 1904년에 창립된 112년 역사의 전통 있는 교회입니다.

2016년 "듣고!, 믿고!, 따르고!"



Since 1904 "꿈을 이루는 교회" 390-883/충북제천시백운면 천등박달로5안길 8 Home Page : www.vit2be.com 담임목사 신상균

### 마음의 겨울



담임목사 신상균

3시 50분 본당에 불이 켜지고, 교회 차량들이 40일 새벽기도회를 위해 운행에 나선다. 4시 40분 예배전 찬양을 부르고, 통성기도 후 새벽예배를 드린다. 각 부서별, 또는 속회별, 또는 선교회별로 순서를 맡아 기도와 성경봉독, 특송을 드리고 난후 자리에 앉는다. 약 20분의 설교와 20분의 통성기도를 마치고 나면 6시가 된다. 축도 후 성도들은 각기 집으로 돌아간다. 약 30분이 지나면 스마트폰에서 소리가 들린다. 나는 스마트폰의 밴드를 확인하기 시작한다.

"성경 10장 읽고 30분 걸었습니다."  
"성경, 찬송 각 15분 정도 소리내어 읽고 부르고 기도문을 썼습니다."  
"독서 30분 했습니다."  
"성경 읊기 1장에서 읊기 10장까지 읽었습니다."

"성경 20분 읽고, 찬양하며 20분 걸었습니다."

"성경 읽고 요가운동 했습니다." 이번 사순절 주제는 '변화'이다. 변화를 위해서 하루 15분씩, 영적인 일 또는 지적인 일, 또는 건강을 위한 일을 하기로 했고, 그 결과를 밴드에 올리기로 했다.

하루에 15분,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의외로 15분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 또 어떤 사람들은 밴드에 자

## "15분 숙제"

신이 했던 일을 올리는 것이 멋쩍어서인지 주저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몇몇 사람들은 매일 자신의 행동을 밴드에 올리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서 나는 깜짝 놀라고 말했다. 왜냐하면 잘할 것 같은 사람보다 못할 것 같은 사람들이 훨씬 더 숙제를 잘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늘 아프다고 하던 권사님이 운동을 하고, 글도 잘 모를 것 같은 연로하신 집사님이 성경을 읽고, 항상 바빠하던 권사님이 책을 읽고, 시간에 쫓기던 부부가 함

께 자전거를 타고, 피곤해 보이던 원로 장로님이 교회에 오셔서 기도를 하고, 몸이 불편한 권사님이 전도를 하는 것이었다. 건강하고 튼튼하고 여유 있는 사람들이 숙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쁘고, 연세가 많으시고 약한 분들이 오히려 숙제를 더 잘하시는 것이었다. 심지어 그중에 어떤 분은 스마트폰이 없어서 다른 성도들의 손을 빌려 숙제보고를 하시는데, 정작 할 것 같은 사람들 중에는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었다. 숙제는 다 하기 싫어한다. 만약 숙제가 없다면 몇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공부하지 않을 것이고, 나중에 상도 없을 것이다. 2016년 성도들에게 내어준 15분 숙제, 성실히 숙제보고를 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그 이름에 동그라미를 쳐주고 싶다. 그리고 그 옆에 참 잘했어요 도장도 찍어주고 싶다.

혹시 여러분은 숙제가 있습니까? 없는 게 좋은 것 같지만 숙제가 있는 게 훨씬 더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도 15분 숙제에 도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실력이 쌓이고 동그라미 인 생이 될 것입니다.

## 부활절 새벽촛불행진 부활의 생명을 온누리에-"새벽을 깨우며..."



백운교회